

지역 소식통

고창군청 · 읍 · 면 새봄 맞이 국토대청결 운동

새봄을 맞아 고창군청 각 부서와 심원면(면장 라남근), 공음면(면장 김수동), 고수면(면장 이용철), 부안면(면장 이수경), 아산면(면장 김재관) 등이 25일 기관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해 마을 주변 일대에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각 부서는 공한지, 하천변 등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해 쾌적하고 정돈된 고창군 산하와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고창군청 성현성 기획예산담당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얼어붙은 마음에 따뜻한 희망의 봄기운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라남근 심원면장은 “깨끗한 심원 만들기 위해 정화활동에 참여해 주신 많은 사회단체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상수도 수도물 수질검사 '적합' 판정

고창군민들이 마시는 수도물 안정성이 확인됐다. 고창군상하수도사업소는 부안면 광역정수장과 수도꼭지 등에서 시료채취와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으로 판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는 매월 부안면 광역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급수과정 단계별로 검사한 결과 탁도와 수소는 이온농도 잔류염소 철, 아연 구리 등 총 50개 항목에서 모두 기준에 적합 및 불검출로 조사됐다.

수질검사 결과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수도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고창군 홈페이지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및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김준년 사업소장은 “고창군 수도물은 정수장에서부터 가정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현대화사업 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군민들께서는 수도물을 안심하고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상권 활성화 도움 되길”

정읍시, 쌍화차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도심 주차난 해소

정읍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장 문제 해결과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가 5만9,300대를 초과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3~4% 증가 추세를 보이며 주차 관련 민원과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심 내 불법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장명동 쌍화차거리 주변 자연 유휴지 18억 원(국비 9억, 시비 9억)이 투입된다.

주차 면수 47면으로 조성되며, 가로등과 방범용 CCTV도 함께 설치해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최근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오는 6월경 사업을 착공해 올해 안으로 준공할 계획이다.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주민 불편과 도로의 불법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곳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깨끗하고 질서 있는 지역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쌍화차 거리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페 등의 상점이 즐비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상권 침체와 인근 불법 주차차 차량으로 인해 주차 공간을 잃어오는 등 이용객과 상점 업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원도심 상점가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공영주차장

은 장명동 113-1번지 외 4필지 1,246㎡ 면적에 총사업비 18억 원(국비 9억, 시비 9억)이 투입된다.

주차 면수 47면으로 조성되며, 가로등과 방범용 CCTV도 함께 설치해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최근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오는 6월경 사업을 착공해 올해 안으로 준공할 계획이다.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주민 불편과 도로의 불법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곳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깨끗하고 질서 있는 지역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쌍화차 거리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장기적인 저출산 현상 극복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대비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

부안군, 사전예방 위한 방역약품 공급·가축 예방 접종 실시

부안군은 관내 축산농가의 주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공급 및 가축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군은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가축방역약품 등 지원 사업비 8억 2천여 만원을 확보 축종별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소·돼지·닭·돼지·우·말·염·뉴캐슬병 등 가축전염병 백신과 예방약품 43종을 적기에 공급하여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선정된 예방약품들은 생산자단체와 관내 담당지역 공수의사에 의해 시육 규모, 질병 발생이력 등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대상 농가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가축방역약품 지원과 더불어 4월 4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대상은 소·돼지 등 우제류 42천두로, 소 50두 미만 시육농가 및 염소농가는 관내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부안군은 관내 축산농가의 주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공급 및 가축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대상은 소·돼지 등 우제류 42천두로, 소 50두 미만 시육농가 및 염소농가는 관내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출산가정 육아용품 지원 추진

정읍시, 저출산 극복 위해... 셋째 이상 출산가정 25만원 상당 지원

정읍시가 장기적인 저출산 현상 극복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5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뿐이며,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에 미치지 못하는 등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시는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2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 출산가정이다. 지난해는 45쌍을 대상으로 1,125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품목은 차량 보조시트, 분유, 기저귀, 아기 옷 등 양육에 필요한 물품이다. 2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구매 후 구비서류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 밖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출산·임신 축하용품 지원, 임신부 영양제 지원 등 임신·출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또 인구증가 정책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 장난감 대여점과 공동육아놀이터 등 아동과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간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아이의 출생을 함께 축하하며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출산 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가정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국비 확보

전북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선정되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벼 재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 감축을 위해 감축계수 개발과 논물 기술관리(간단관개, 알개, 갈래대기) 보급으로 지역별 탄소감축 우수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고창군에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송암유기농영농조합법인인 흥덕면 일원에서 54농가와 함께 140ha의 벼재배 면적에서 사업을 펼친다.



총사업비 4억원(국비 70%, 도비 17%, 군비 13%)은 농기교육 및 컨설팅, 이행점검 등 우수 감축모델 개발, 저탄소 논물관리기술 이행을 위한 물꼬와 농기자재 지원 등에 사용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민관 협의체 구성 축산악취 개선 활동 기반 구축

정읍시가 축산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 주민 갈등 해소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축산농장과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 시설을 현대화하고 ‘축산악취 저감 대책 5개년 계획(2020~2024)’을 수립해 추진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이해는 4월부터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축산악취 개선사업 추진과 악취 개선계획 이행, 우수 사례 지역 방문 등의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각별 맞춤형 악취 저감 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하는 등 악취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의 각종 악취 저감 사업과 지도·단속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 관련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악취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25일 ‘정읍시 축산악취개선 지역협의

체’를 구성했다.

지역협의체는 축산악취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 관리 및 소통·상생 기구로서 정읍시와 환경단체, 축산단체, 자원화 조직체, 주민대표, 축산농가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4월부터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축산악취 개선사업 추진과 악취 개선계획 이행, 우수 사례 지역 방문 등의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